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 연구: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재형 (서울산업진흥원)*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가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K대, S여대, S대, H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교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참가 대학생 356명의 설문을 분석했다.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실패두려움은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일부와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미래에 주도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개척하며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실패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스타트업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주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낮추고 창업함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으로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재학 중 창업경험을 대외적으로 인정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핵심주제어: 기업가정신, 창업실패두려움, 창업의도

1. 서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2017년 10월 발표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7에 의하면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는 2017년 100점 만점에 약 64점을 기록하여 2016년 55점 대비 크게 상승했다. 최근 3년간 55점 근방에 있던 인식도가 2017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와 같이 스타트업 생태계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전환된 원인으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에 도움이 되었으며, 정부정책도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인식도 점점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스타트업 분위기는 내년에 더욱 좋아질 것이란 인식 역시 2016년 23.3%에서 2017년 48.3%로 증가하면서 창업 생태계의 긍정적 분위기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대학졸업 예정자가 창업을 고려하는 수준 역시 창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17년 38%로 2016년 30%에서 증가하였다. 이는 역시 스타트업 성공사례 증가로 인한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더불어 대학 등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한 창업교육 확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대학을 포함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기관은 그 동안의 정부지원으로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이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하지만 교육의 근거로 활용되리라 기대되는 연구 즉,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와 창업의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그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하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그 동안 가설은 많이 제시되었으나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재석·이상명, 2015; Martin et al., 2013; Krueger & Brazeal, 1994). 또한 기존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성별, 전공, 창업교육 만족도, 혹은 창업공모전 참여동기 등의 변수를 주로 확인하는데 그쳐(김영중 외, 2014; 조영준, 2014; 김정곤·양동우, 2016), 좀 더 다양한 조절 또는 매개변수를 연구하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성공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창업실패두려움과 관련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2018년 1월 발표한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안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에 이어 2위로 나타

* 주저자, 서울산업진흥원, rkehr@naver.com

· 투고일: 2018-07-10

· 수정일: 2018-08-15

· 게재확정일: 2018-08-28

났다. 이러한 조사결과에서 예비창업자가 창업의도를 가지지 못하는 원인은 창업실패두려움이 주요 원인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창업가인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덧붙여 매개변수로 창업실패두려움을 제시하고, 이들 변수가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와 창업의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실패두려움을 낮추어 창업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및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2.1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은 현재 보유한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발견하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정신으로 정의된다(Stevenson, 1983; Timmons, 1994).

이러한 기업가정신 개념 설명에 있어 대표적인 학자는 Schumpeter(1934)인데, 그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의 창의적인 행동으로 기업가가 환경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박남규, 2015). 이후 Miller(1983)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해 세부적인 요소로 구분하여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재결합하는 활동을 기업가정신으로 보았다(하규수·윤백중, 2011). Miller(1983)가 정의한대로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나눌 수 있다. 혁신성 (Innovativeness)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호하고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진취성 (Proactiveness)은 새로운 기회를 선제적 및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위험감수성 (Risk-Taking Propensity)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도를 각각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9).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와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분류하였다.

창업의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ird(1988)에 의해 체계적으로 시작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는 Shapero(1975), Shapero & Sokol(1982) 등이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모형을 정립하였고, Krueger(1993a)와 Davidsson(1995)이 기존의 의도모형 및 창업의도모형을 정리 확장하여 또 다른 창업의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Autio et al.(1997)는 기존 연구모형들을 대학이라는 상황에 맞도록 적용했는데 이들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는 의도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재석·이상명, 2015).

의도모형이 제시한 의도를 창업으로 연결하여 창업과 창업

의도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는 Ajzen의 계획된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과 Shapero의 창업 이벤트 모델 (Shapero's model of the Entrepreneurial Event: SEE)이 그 실증의 주요 근거가 된다(Krueger et al., 2000).

특정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 및 설명하기 위해 TPB는 해당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과 태도가 호의적일수록, 그리고 인지된 통제가 클수록 해당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더욱 강해진다고 보았다(Ajzen, 1991). 인간의 행동은 인지적 과정으로 계획된 것이며 행동의 실행여부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the Act), 사회적 규범 (Subjective Norms) 및 지각된 가능성 (Perceived Feasibility)을 들고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행동의도 (Intentions)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을 해당 행동에 집중시키기 때문에 해당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재석·이상명, 2015; Autio et al., 2001; Krueger et al., 2000; Ajzen, 1991).

TPB와는 달리 SEE는 관성을 대신할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그 관성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 것으로, 창업의도란 창업에 대한 개인적인 매력의 정도인 인지된 매력 (Perceived Desirability), 창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인지된 타당성 (Perceived Feasibility), 그리고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실천성향인 행동성향 (Propensity to Act)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보았다(Shapero & Sokol, 1982). 실직 또는 이민 등 인생에 있어서 주요한 사건 (Event)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은 하나의 선택으로서 창업을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결국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업이 매우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박시사·강성일, 2007; Krueger et al., 2000).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 관계에 대해 윤남수(2012)는 기업가정신이 높은 학생이 창업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향림·하규수(2012)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강한 사람의 창업의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박기용(2009)은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 했다. 김정근·양동우(2016)도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개 요인이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

최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정책학, 성인학습, 사회학, 기업가정신 등의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축소시키는 인지작용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창업의도, 유지의사를 비롯한 기업가적 활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김수진 외, 2016). 오상훈(2013)은 청년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도에 창업가정신을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시니어 잠재창업가는 창업교육 수료 이후에 창업의도가 얼마간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지만, 실제로 창업실행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창업의도가 더 이상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다. 조성은 외(2012)은 기존 건강신념모델의 인지적 요인(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민감성) 외에 공포를 감정적 요인으로 추가하는 확장모델을 통해 공포가 인지적 요인과 행동의도사이를 매개함을 입증했다.

창업실패를 피하고자 하는 잠재창업자에게 창업실패관련 두려움은 위의 논문에서의 공포처럼 폐렴과 같은 치명적 질병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 요인보다는 감정적으로 덜한 수준의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 판단되므로(김재형, 2016),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요인인 공포 대신 창업실패 두려움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와 기업가정신 지속성, 초기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킴으로 창업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renius & Minniti, 2005; Morales-Gualdrón & Roig, 2005).

관련 선행연구로서, Covin & Slevin(1989)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요소 중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위험감수성은 본질적으로 그 속성상 창업실패두려움과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창업실패 두려움은 위의 논문에서 말하는 미래에 예상되는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인지작용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만구(2018)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은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은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은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실패두려움과 창업의도

앞서 기술한 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를 비롯한 기업가적 행동의 주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과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킨다(Mitchell & Shepherd, 201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있어서도 발생하는데, 김재형(2016)의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창업의도를 가진 개인에게 있어서 창업실패는 건강을 원하는 개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유사한 감정적 과정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어, 건강을 원하는 개인이 건강 관리에 실패하여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창업성공을 원하는 잠재창업자에게 창업실패 두려움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수진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에게 인지작용을 유발하여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축소시켜 결국엔 창업의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전해영, 2016)의 경우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본성과 함께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의 속성으로 인해 창업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어 창업실패두려움이 더욱 높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3: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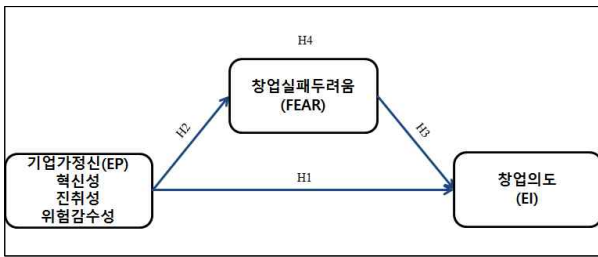
Mitchell & Shepherd(2011)의 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를 비롯한 기업가적 행동의 주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결과적으로 인적자원과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긍정적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맥락에서, 창업실패 두려움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4-1: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중 혁신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4-2: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중 진취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 4-3: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중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으로 도출된 가설들을 종합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Figure 1>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대학교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등록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520개의 설문지를 배포했는데, 그 중 설문조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164개의 응답을 제외한 356개의 유효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거주지역, 전공, 창업경험 및 직계가족 창업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표본의 특성으로는 법정·상경계 학생들(36.0%)과 이공계 학생들(33.4%)이 다른 전공에 비해 많고,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며(96.3%), 직계가족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보다 많았다(66.9%). 보다 상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표본 특성(n=356)

| 항목 | 빈도 | 비중(%) | |
|-----------|--------|-------|------|
| 성별 | 남성 | 210 | 59.0 |
| | 여성 | 146 | 41.0 |
| 거주 지역 | 서울 | 229 | 64.3 |
| | 경기 | 98 | 27.5 |
| | 인천 | 14 | 3.9 |
| | 그외 | 15 | 4.2 |
| 전공 | 법정상경 | 128 | 36.0 |
| | 인문사회 | 66 | 18.5 |
| | 이공의예 | 119 | 33.4 |
| | 예체능/기타 | 43 | 12.1 |
| 창업 경험 | 있다 | 13 | 3.7 |
| | 없다 | 343 | 96.3 |
| 직계가족 창업경험 | 있다 | 118 | 33.1 |
| | 없다 | 238 | 66.9 |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PROCESS MACRO는 최근의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매개효과, 조절효과, 직접효과 등을 추가적인 과정 없이 한번에 효과크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다(이현웅, 2014). 이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0.0 이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변수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선정하여 측정되었다. 모든 변수는 1-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7)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변수명 | 변수의 정의 | 선행연구 | 문항 수 |
|----------|---|---------------------------|------|
| 혁신성 |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 하는 성향 | Miller(1983) 김정곤(2016) | 6 |
| 진취성 | 적극적으로 나아가 일을 이룩하려는 성향 | | 6 |
| 위험감수성 |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성향 | | 6 |
| 창업실패 두려움 | 창업실패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손해에 대한 부정적 감정 | 김재형(2016) | 8 |
| 창업 의도 |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창업에 대한 강한 실행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행동계획 | Cran(1996), 김재형(2016) | 8 |

IV. 연구결과

4.1 측정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변수는 요인적재값이 .4 이하인 것을 제외하고 혁신성 6문항, 진취성 6문항, 위험감수성 6문항, 창업실패 두려움 8문항, 창업의도 8문항으로 변수간 분류되어 변수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변수의 신뢰성 검증 결과 모든 변수는 신뢰도(Cronbach's α 값) .8 이상을 얻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 측정변수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 변수 | 측정문항 | 요인적재량 | 고유값 | 분산설명력 | Cronbach's α |
|-----|--------|-------|-------|--------|---------------------|
| 혁신성 | E_ino4 | .810 | 4.314 | 23.969 | .916 |
| | E_ino5 | .789 | | | |
| | E_ino3 | .711 | | | |
| | E_ino1 | .692 | | | |
| | E_ino2 | .678 | | | |
| | E_ino6 | .632 | | | |
| 진취성 | E_pro3 | .833 | 4.212 | 23.402 | .900 |
| | E_pro4 | .797 | | | |
| | E_pro5 | .749 | | | |
| | E_pro2 | .698 | | | |
| | E_pro6 | .555 | | | |
| | E_pro1 | .514 | | | |

| | | | | | |
|---------|---------|------|-------|--------|------|
| 위험감수성 | E_risk3 | .748 | 3.859 | 21.441 | .895 |
| | E_risk2 | .741 | | | |
| | E_risk5 | .669 | | | |
| | E_risk4 | .656 | | | |
| | E_risk1 | .653 | | | |
| 창업실패두려움 | E_risk6 | .594 | 5.640 | 70.497 | .939 |
| | FEAR5 | .904 | | | |
| | FEAR7 | .880 | | | |
| | FEAR2 | .870 | | | |
| | FEAR4 | .868 | | | |
| | FEAR1 | .825 | | | |
| | FEAR6 | .819 | | | |
| | FEAR3 | .792 | | | |
| 창업의도 | FEAR8 | .747 | 6.231 | 77.888 | .959 |
| | E5 | .943 | | | |
| | E6 | .913 | | | |
| | E4 | .911 | | | |
| | E7 | .907 | | | |
| | E9 | .877 | | | |
| | E3 | .839 | | | |
| | E8 | .835 | | | |
| E2 | .829 | | | | |

4.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Table 4>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는 창업실패두려움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 변수 | 혁신성 | 진취성 | 위험감수성 | 창업실패 두려움 | 창업의도 |
|---------|--------|---------|---------|----------|-------|
| 혁신성 | 1.000 | | | | |
| 진취성 | .718** | 1.000 | | | |
| 위험감수성 | .761** | .757** | 1.000 | | |
| 창업실패두려움 | -.105* | -.161** | -.154** | 1.000 | |
| 창업의도 | .560** | .582** | .593** | -.258** | 1.000 |

* p<.05, ** p<.01

4.5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특히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창업실패두려움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가정신과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model 4)를 통해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452로 설명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94.1650, p=.0000).

4.5.1 주요 변수간 직접효과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실패두려움 및 창업의도 등 주요 변수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beta = .8500, t = 12.5250, p < .001$),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 = -.2502, t = -4.6875, p < .001$). 진취성 역시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beta = .8609, t = 12.9065, p < .001$),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 = -.2092, t = -3.9265, p < .001$). 위험감수성도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beta = .8882, t = 13.3660, p < .001$), 창업실패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 = -.2121, t = -4.0315, p < .001$). 그리고 혁신성은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고($\beta = -.1330, t = -1.9794, p < .05$), 진취성도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 = -.2019, t = -3.0753, p < .01$). 그리고 위험감수성 역시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eta = -.1941, t = -2.9259, p < .01$). 따라서 주요 변수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관한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3>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5> 주요 변수의 직접효과

| 가설 | 경로 | β | SE | t값 | LLCI (하한) | ULCI (상한) |
|---|-----------------|---------|-------|------------|-----------|-----------|
| 가설1-1 | 혁신성 → 창업의도 | .8500 | .0679 | 12.5250*** | .7166 | .9835 |
| 가설3 | 창업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 -.2502 | .0534 | -4.6875*** | -.3552 | -.1452 |
| R ² = .3538, F=96.6246, p=.0000 | | | | | | |
| 가설1-2 | 진취성 → 창업의도 | .8609 | .0667 | 12.9065*** | .7298 | .9921 |
| 가설3 | 창업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 -.2092 | .0533 | -3.9265*** | -.3140 | -.1044 |
| R ² = .3658, F=101.8220, p=.0000 | | | | | | |
| 가설1-3 | 위험감수성 → 창업의도 | .8882 | .0665 | 13.3660*** | .7575 | 1.0189 |
| 가설3 | 창업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 -.2121 | .0526 | -4.0315*** | -.3156 | -.1086 |
| R ² = .3802, F=108.2880, p=.0000 | | | | | | |
| 가설2-1 | 혁신성 → 창업실패두려움 | -.1330 | .0672 | -1.9794* | -.2652 | -.0009 |
| R ² = .0109, F=3.9179, p=.0485 | | | | | | |
| 가설2-2 | 진취성 → 창업실패두려움 | -.2019 | .0657 | -3.0753** | -.3311 | -.0728 |
| R ² = .0260, F=9.4572, p=.0023 | | | | | | |
| 가설2-3 | 위험감수성 → 창업실패두려움 | -.1941 | .0663 | -2.9259** | -.3246 | -.0636 |
| R ² = .0236, F=8.5607, p=.0037 | | | | | | |

* p<.05, ** p<.01, *** p<.001

4.5.2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는 창업실패두려움이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창업실패두려움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4-1>, <가설 4-2>, <가설 4-3>를 각각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분석의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6-1>과 같이 창업실패 두려움은 혁신성과 창업의도 사이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LLCI: -.0023, ULCI: .0875)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은 기각되었다. 그 외의 <Table 6-2>, <Table 6-3>과 같이 창업실패 두려움은 진취성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LLCI: .0087, ULCI: .0983), 위험감수성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LLCI: .0069, ULCI: .0971)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실패 두려움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4-2>, <가설 4-3>은 채택되었다.

<Table 6-1>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혁신성-창업의도)

| 효과 | 경로 | β | SE | LLCI (하한) | ULCI (상한) |
|------------------------------------|----------------------|---------|-------|-----------|-----------|
| Total | 혁신성 → 창업의도 | .8833 | .0695 | .7467 | 1.0199 |
| Direct | 혁신성 → 창업의도 | .8500 | .0679 | .7166 | .9835 |
| Indirect (가설4-1) | 혁신성 → 창업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 .0333 | .0223 | -.0023 | .0875 |
| $R^2 = .3136, F=161.6972, p=.0000$ | | | | | |

<Table 6-2>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진취성-창업의도)

| 효과 | 경로 | β | SE | LLCI (하한) | ULCI (상한) |
|------------------------------------|----------------------|---------|-------|-----------|-----------|
| Total | 진취성 → 창업의도 | .9032 | .0672 | .7711 | 1.0353 |
| Direct | 진취성 → 창업의도 | .8609 | .0667 | .7298 | .9921 |
| Indirect (가설4-2) | 진취성 → 창업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 .0422 | .0226 | .0087 | .0983 |
| $R^2 = .3381, F=180.8609, p=.0000$ | | | | | |

<Table 6-3>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효과(위험감수성-창업의도)

| 효과 | 경로 | β | SE | LLCI (하한) | ULCI (상한) |
|------------------------------------|------------------------|---------|-------|-----------|-----------|
| Total | 위험감수성 → 창업의도 | .9294 | .0671 | .7975 | 1.0613 |
| Direct | 위험감수성 → 창업의도 | .8882 | .0665 | .7575 | 1.0189 |
| Indirect (가설4-3) | 위험감수성 → 창업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 .0412 | .0220 | .0069 | .0971 |
| $R^2 = .3517, F=192.0486, p=.0000$ | | | | |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개 대학교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참가 대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는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정(+의)의 유의한 영향을,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윤남수(2012)의 기업가정신이 높은 학생이 창업의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윤남수(2012)의 연구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은 것에 비해 기업가정신 구성

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별로 창업의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한 것은 차별화된다. 또한 최항림·하규수(2012)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강한 사람의 창업의도가 높다고 한 연구결과와 박기용(2009)의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고한 연구결과와는 다른 연구결과로 차별화된다. 그리고 김정곤·양동우(2016)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3개 요인이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는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만구(2018)의 기업가정신은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측면도 있으나, 강만구(2018)의 연구가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은 것에 비해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별로 분석하여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전부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은 차별화된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은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혁신성을 제외하고 대학생의 창업의도와와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의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만구(2018)의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은 매개효과를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다르게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중 혁신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것이 차별화된다. 특히, 혁신성은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하지 않는 점을 새롭게 밝혀내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위험 회피적 성향의 대학생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 하는 성향의 골목길 창업, 라이프 스타일 창업 등 소소한 혁신성이 필요한 창업분야가 확대되는 현상을 밝혀내었다. 이는 창업실패두려움이 기업가정신의 모든 요소를 매개할 것이라 예측되는 일반적인 인식을 극복한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성공창업자 사례특강 등을 확대하여 기업가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의 경우, 기업가정신 센터 등을 통해 창업교과목 외에 기존 교과목을 융합, 혹은 방식을 해커톤 방식으로 바꾸어 기업가정신 측면에서의 해석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과목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인 해커톤이 공과대학 졸업과제를 위한 교과목에서 출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창업실패두려움을 낮출 수 있도록 스타트업 현장경험 제공을 통해 막연한 창업실패두려움

을 낮추고 창업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인한 창업실패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창업경험을 대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의 경우, 대학생의 창업경험 활성화를 통한 창업실패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대학생이 창업경험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학칙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Y대와 S대가 시행한 창업학점제를 시행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해 창업실패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학의 경우, 기업가정신 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단지 2019년부터 기업가정신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한 S대 사례나 공과대학생 대상 테크노경영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cash-class를 의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H대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창업실패두려움이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구성요소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중 혁신성을 제외하고 창업의도 사이에 매개역할을 하므로 창업실패두려움을 낮추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대학생 창업성공사례 탐방 및 특강을 통해 창업실패두려움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의 경우에도 창업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대학 출신 성공창업자의 특강 및 멘토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공창업자의 기업에 조사하여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하는 Y대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혁신성은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하지 않는 점을 밝혀내어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 하는 성향의 대학생과 맞는 문화예술 분야 혹은 라이프 스타일 분야의 창업교육이나 창업지원책을 발굴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계 및 향후 과제로서 제언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창업실패두려움에 관한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측정항목을 보다 세분화 또는 다양화 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계점은 서울 소재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시행하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지역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의견이 부족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다수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보다 정확히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참가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다수의 연구사례에도 있듯 기술창업

분야에서도 성공창업의 연령은 40대 이후에서 더욱 많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대학생 이외 대학을 졸업한 연구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창업 현실에 근접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했지만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실제 성공한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보다 정확히 기업가정신과 성공창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강만구(2018). *기업가정신이 스타트업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마인드 및 창업실패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수진·한정화·이상명(2016).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3), 49-61.

김영중·권영국·윤혜현(2014).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17, 7-26.

김재형(2016). *창업실패관련 평가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실패두려움과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김정곤(2016).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창업공모전 참여동기의 매개효과, 정부창업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김정곤·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공모전 참여동기를 매개변수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4), 477-487.

박기용(2009). 외식산업의 기업가정신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리학회지*, 15(3), 153-165.

박남규(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 실패 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31(2), 187-204.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오픈서베이(2017).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7*, Retrieved (2018.07.01.) from https://www.opensurvey.co.kr/Opensurvey_start-up_trendreport_2017.pdf

오상훈(2013). *창업년 및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25(2), 1537-1557.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벤처창업연구*, 10(3), 61-74.

이현웅(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 연구*, 16(3), 225-249.

전해영(2016). 국내외 스타트업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654*,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정대용·김재형(2016). 창업실패관련 지각된 위협이 창업실패두려움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4), 571-590.

조정은·신호창·유선옥·오형신(2012).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두려움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연구*, 16(1), 148-177.
- 조영준(2014).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를 매개효과로, *디지털정책연구*, 12(11), 197-208.
- 최향림·하규수(2012). 직장인들의 은퇴 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디지털정책연구*, 10(9), 195-212.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7). 2017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Retrieved (2018.07.01.) from http://www.koef.or.kr/koef/dwccs/board/BoardList.do?H_MENU_CD=100203&L_MENU_CD=10020306&SITE_ID=KOEf&MENUON=Y&BOARD_ID=6
- 하규수·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3406-3414.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s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63.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 Ulfstedt, T.(1997).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Testing an intent model in Asia, Scandinavia and USA.,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7, Babson College/Kauffma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Wellesley: Babson College.
-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Parker, G. G. C., & Hay, M.(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hoi, H. L., & Ha, K. S.(2012). Factors affecting startup intention of retired office-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195-212.
- Covin, J. G., & Slevin, D. P.(1989). New venture strategic posture, structure, and performance: An industry life cycl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1), 123-135.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 Davidsson, P.(199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aper prepared for the RENT IX Workshop, Piacenza, Italy, 23-24.
- Ha, K. S., & Yoon, B. J.(2011).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8), 3406-3414.
- Hayes, A. F.(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Joe, S. E., Shin, H. C., Yoo, S. E., & Oh, H. S.(2012). The Study of Factors Affecting Tuberculosis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s: An Extension of HBM with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Fea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6(1), 148-177.
- Joe, Y. J.(2014).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97-208.
- Jeon, H. Y.(2016).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Startup Companies*, VIP Report, 654, Seoul, Hyundai Research Institute.
- Jeong, D. Y., & Kim, J. H.(2016). The Effect of Perceived Threat for Entrepreneurial Failur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ed by Fear on Business,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1(4), 571-590.
- Kim, J. G.(2016).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ng in the Venture Contest,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Ho-Seo Venture University.
- Kim, J. G., & Yang, D. W.(2016).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4), 477-487.
- Kim, J. H.(2016). *The Effect of Evaluation Factors for Entrepreneurial Failur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Fear on Business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 Kang, M. K.(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Start a Start-Up: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Global Mindset and Fear of Entrepreneurial Failur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University of Seoul.
- Kim, S. J., Han, J. W., & Lee, S. M.(2016).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49-61.
- Kim, Y. J., Kwon, Y. K., & Yoon, H. H.(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ollege-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7(2), 7-26.
- Korea entrepreneurship foundation(2017). 2017 Survey on Entrepreneurship, Retrieved (2018.07.01.) from http://www.koef.or.kr/koef/dwccs/board/BoardList.do?H_MENU_CD=100203&L_MENU_CD=10020306&SITE_ID=KOEf&MENUON=Y&BOARD_ID=6

- Krueger, N. F.(1993a). Growing Up Entrepreneurial?: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Exposure to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52, 80-84.
-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18(3), 91-104.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e, H. W.(2014).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6(3), 225-249.
- Lee, J. S., & Lee, S. M.(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3), 61-74.
- Martin, B. C., McNally, J. J., & Kay, M. J.(2013). Examining the formation of human capital in entrepreneurship: A meta-analysi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utco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8(2), 211-224.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95-209.
- Morales-Gualdrón, S. T., & Roig, S.(2005). The new venture decision: An analysis based on the GEM project database.,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 pp.479-499.
- Oh, S. H.(2013).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up Environments on Young Adults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Ho-Seo Venture University.
- Park, K. Y.(2009). A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Corporate Performanc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15(3), 153-165.
- Park, N. K.(2015).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Ho-Seo Venture University.
- Park, S. S., & Kang, S. I.(2007).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1(2), 187-204.
-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Transaction publishers, 55.
- Shape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6), 83-88.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artup alliance & Open Survey.(2017). Startup trend report 2017, Retrieved (2018.07.01.) from https://www.opensurvey.co.kr/Opensurvey_start-up_trendr_eport_2017.pdf.
- Stevenson, H.(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9, 384-131.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Irwin/McGraw-Hill.
- Yoon, N. S.(2012). The Effect of Potential Entrepreneurial Motivations on Entrepreneurship and Commitment to Starts-up: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2), 1537-1557.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Fear on Business

Kim, Jae-Hyoung*

Abstract

This research was implemented to check what effects entrepreneurship hav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verify the emotional factor 'Fear on Busines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bove all, in the study Health Belief Model was applied to research into emotional factors, such as 'Fear on Business'. Specifically, it was performed to check what effects 'Fear on Business' ha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see if there are any mediating effects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s above, the students who took a business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related course were surveyed (all 356); and research findings were produced.

To summarize the findings, entrepreneurship did influe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significantly. In addition, entrepreneurship significantly influenced 'Fear on Business'. And 'Fear on Busines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I; it turned out that 'Fear on Business'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rom these result, it is thought that programs or policies for reducing 'Fear on Business' are needed. Finally, because entrepreneurship can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medium of 'Fear on Business', it is thought that the government's effort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is needed to overcome 'Fear on Business'.

Keywords: Entrepreneurship, Fear on Business, Entrepreneurial intention.

* First Author, Manager, Seoul Business Agency, rkehr@naver.com